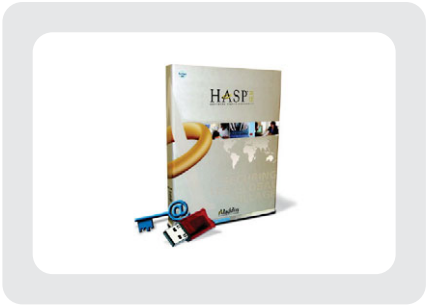
# Venture Focus | 승승장구!! 벤처 소식

## 가비아 IDC, 분당 센터 개관

가비아(대표 김홍국, www.gabia.com)가 분당에 새 IDC센터를 개관했다. 이로써 가비아는 서초동 KIDC와 가산동 롯데IDC에 이어 분당 호스트웨이 IDC까지 보유, 고객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로 개관한 분당 센터는 랙당 전력 소비량을 기존 2.2KW에서 4.4KW로 두 배 가까이 늘려 공급, 기존에 전력 제한 때문에 시스템을 마음대로 확장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랙을 채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 비용절감은 물론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의 회선 대신 가비아 KINX의 IX망으로 교체하고, 백본을 이중화함으로써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IX망 회선료를 통해 기존 IDC에 비해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에이씨앤피, 아마추어 저작물 보호 캠페인 펼쳐

에이씨앤피(대표 정광섭, www.acnp.co.kr)가 대학생 벤처 동아리 및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솔루션을 무상지원하는 "아마추어 저작물 보호 캠페인"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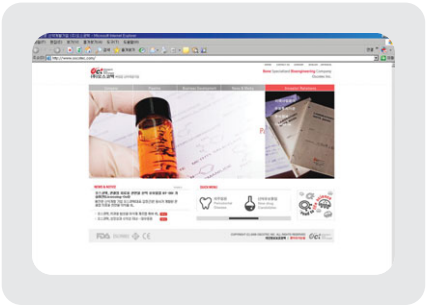
업계 최초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순수개발단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최신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솔루션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개발한 다양한 저작물의 안전한 보호를 돕고, 동시에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에이씨앤피는 내년 2월까지 회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모든 순수개발단체 및 대학생 벤처 동아리에 세계 1위의 보안업체인 이스라엘 알라딘사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통합형 불법복제 방지 솔루션 'HASP SRM' 정품을 무상지원한다. 캠페인에 참여할 대학이나 연구단체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에이씨앤피 홈페이지(www.HASP.co.kr/04_helpdesk/2008campaign.php)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간단한 인적사항과 연구개발 목적 · 배경 등을 기재한 후 이메일(info@acnp.co.kr)로 접수하면 된다.

## 디지털큐브, 텔슨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 기대

PMP 업계 1위 ㈜디지털큐브(대표 손국일, www.digital-cube.co.kr)가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텔슨전자(대표 김동연)를 모태로 설립된 텔슨(대표 장병권)과 전격 합병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사간의 주요 합병 배경에는 디지털큐브가 IT기기 틈새시장을 공략할 차기 신 성장 동력엔진으로 통신단말기 시장진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디지털큐브는 기존 PMP, UMPC, 내비게이션 등에서 차기 와이브로 단말기, PMP폰, 스마트폰 등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멀티미디어 분야는 물론 차세대 이동전화단말기까지 첨단 고급제품을 통한 특화시장 공략을 통해 수익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그간 전량 외주생산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품질문제 및 영업이익 악화가 해소될 전망이며,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텔슨과 합병하게 됨으로써 수익성이 큰 폭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 오스코텍, 대웅제약과 전략적 제휴 체결



뼈전문 신약개발 벤처 회사인 오스코텍(대표 김정근)은 대웅제약(대표 이종욱)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체결하고, 관절염 치료제 신약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기술이전을 통하여 대웅제약은 오스코텍이 개발한 관절염 치료용 천연물 의약품 후보물질인 BT-201에 대한 국내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판매권을 보유하게 되며, 오스코텍은 계약금, 기술료와 특허만료 기간까지 로열티를 확보하게 된다. BT-201은 내년에 임상2상 시험에 진입할 예정이다.

2003년 지식경제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과제로 선정되어 2006년까지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BT-201은 오스코텍이 6년 동안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후보물질로, 염증유발 인자의 생성과 연골 및 뼈의 파괴물질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관절에서 연골의 재생을 돕고 뼈의 골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 안철수연구소, 특허 경영으로 국산 SW기술력 선도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 www.ahnlab.com)가 활발한 특허경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안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최대 정보보안 기업 안철수연구소는 지난달 키보드 보안 관련 PCT 국제특허 2종을 출원한 데 이어, 최근에는 'TLB를 이용한 메모리 접근 제어 방법' (특허출원 제2006-0109531호) 기술의 특허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안철수연구소는 올해에만 33건의 특허를 출원 벤처/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가장 활발한 특허경영으로 글로벌 기술력 확보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 레드게이트,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핵심기술 특허 취득

서버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레드게이트(대표 이은필, www.redgate.co.kr)는 원천적으로 시스템 데이터를 보호하고 내부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에 레드게이트가 취득한 특허 기술은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강력하고 견고한 접근통제 프레임을 제공하는 'Unix/Linux, Windows 시스템의 보안역할 상태 전이 모델을 이용한 불법권한 이동 차단 및 강제적 접근통제 방법 및 시스템' (특허 제 10-0853722, 0853723)과 시스템 데이터의 원천적인 보호를 위한 '보안 커널과 연계한 실시간 무결성 점검 및 추적방법' (특허 제 10-0853721)이다.

레드게이트는 이같이 특화된 보안기술들을 기반으로 현재 새로운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이 시스템의 출시와 함께 대표적인 상용 운영체제 상에서 운용되는 모든 서버 시스템 및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보호는 물론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수준의 시스템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